

##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Disaster Victims in One-person Households

Yi Re Kim<sup>#</sup>, Wonik Lee<sup>+</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disaster victims in one-person household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nd Disaster Victims Panel Survey collected by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for 1,659 victims who experienced natural or social disasters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disaster victims in one-person households include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poor, the elderly and women. Second,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mong disaster victims in one-person households were lower compared to those in multi-person households. Thir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for disaster victims in one-person households. This result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or the recovery from disaster and suggested that a community-based program would be needed to improv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or disaster victims in one-person households who lack family support.

**Key words:** disaster, one-person households,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disaster vulnerability

### 1. 서론

‘일코노미(일인가구와 이코노미의 합성어)’, ‘솔로 이코노미’, ‘혼족’, ‘홀로’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신조어이다. 1인가구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의 변화에 따라 문화, 여가, 금융권 등에서도 1인가구 맞춤형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0년 15.5%였던 1인가구의 비율이 2017년에는 2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비율이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였다(Statistics Korea, 2018a).

1인가구의 급증 자체가 사회문제는 아니지만 1인가구의 급증은 극적인 사회구조의 변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의 다양한 생활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Park & Chun, 2017). 예컨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1인가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sup>#</sup> The 1st author: Yi Re Kim, Tel. +82-51-510-1559, Fax. +82-51-517-4662, e-mail. [yyy9912@pusan.ac.kr](mailto:yyy9912@pusan.ac.k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Wonik Lee, Tel. +82-51-510-2122, e-mail. [wonik21@pusan.ac.kr](mailto:wonik21@pusan.ac.kr)

1인가구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 18.0%로 가장 많고, 30대가 17.2%, 20대가 17.1%, 50대가 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가구의 경우 높은 빈곤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인빈곤율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빈곤율이 월등히 높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0대와 30대 청년층에게서 나타나는 ‘취업난’과 ‘주거불안’ 역시 1인가구 증가의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회문제이다.

1인가구의 비중과 1인가구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인가구 관련 연구는 주로 1인가구 구성원의 소비 및 주거 형태(Won, 2014; Lee, 2015), 또는 범죄학 분야(Lee, 2016; Ko, 2018)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 재난 발생과 1인가구의 특성을 함께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최근 발표되는 재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1인가구 구성원들을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Kim(2016)에 따르면 1인가구 여성의 재난 대응 능력이 다인가구 여성의 재난 대응 능력보다 낮았으며, 장소별 재난 상황에 따른 대피 방법 인지율에서도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난 취약성을 갖는 집단은 대부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안전 환경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진다(Shim, *et. al.*,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 빈곤율은 2018년 약 48%로 전체 가구 빈곤율 약 1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이는, 1인가구가 재난과 관련하여 ‘신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ang & Lee(2016)에 따르면 1인가구는 주거환경도 다인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중년 및 노인 1인가구의 경우 환

기·난방, 설비·진동 등의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취약점은 재난대피 단계와 재난복구 단계에서 돌봄과 관련한 문제이다. 1인가구는 재난 상황에 대한 인지 측면에서 다인가구와 비교할 때 취약하여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난 발생 후 복구 과정에서도 1인가구 특성상 가족이 있는 다인가구에 비해 적절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기 힘들다.

재난피해자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도 1인가구는 취약하다. 사회적 지지는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중요한 완화요소이다(Cobb, 1976; Solomon, *et. al.*, 1988; Sim, *et. al.*, 2016; Kim, *et. al.*, 2019). 가족, 친구,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등 사회적 지지 체계와의 연계는 재난 생존자 또는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재난으로부터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필수적이다(Korea Mental Health R&D Project, 2018). 그러나 1인가구 구성원에게는 일차적인 지지체계 역할을 하는 가족이 없으며,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친척 또는 지역사회 이웃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다인가구 구성원에 비하여 매우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7).

재난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재난 이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Go & Kim, 2017). 삶의 질은 건강, 식사, 고통의 부재 등 물질적인 측면과 스트레스, 불안, 걱정, 즐거움 등 정신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의미한다(Kwon, 2018). 따라서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이란 단순히 개인의 신체 및 재산의 회복을 넘어서 물질적, 정신적 삶의 질이 재난 피해 이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난 피해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지가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으로서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사회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사회적 지지는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1인가구의 재난 취약성

1인가구는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말한다(Statistics Korea, 2019a). 1인가구 구성원은 다인가구 구성원에 비하여 재난 대응 능력에서 취약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 장년, 청년층 등 모든 인구 집단에서 다인가구 구성원과 비교했을 때 1인가구 구성원은 재난관련 취약성을 가진다.

Kim(2016)에 의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한 남성은 35.9%인 반면 여성은 14.1%에 그쳐 재난 대응 능력과 관련한 성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도 1인가구의 여성은 같은 질문에 10.2%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다인가구 여성(14.6%)에 비하여 재난 대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 능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질문에서도 1인가구 여성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집안에서, 학교·직장에서, 거리 이동 중, 교통수단 이용 중, 마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재난이 발생한다면 대피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1인가구 여성은 다인가구 여성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낮은 대피방법 인지율을 보였다. 예를 들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재난 발생 시 대피방법 인지 여부를 질문한 항목에서 다인가구 여성은 27.8%의 인지율을 보인 반면 1인가구 여성은 13.4%에 그쳤다.

1인가구 구성원의 재난 취약성은 노인 집단에서도 확인된다. 2019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1인가구는 34.2%이다(Statistics Korea, 2019b). 노인은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특정 상황에 대응할 때 속도가 느리고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지시에 따른 대피 상황에서도 판단력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19). 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고령, 저학력, 저소득, 건강악화 등 일반적으로 노인이 가지는 취약성에 사회적 자원 부족이라는 취약성이 더해져서 재난 상황에서 피해가 극대화된다고 보고되었다(Jeong, *et. al.*, 2018).

일반적으로 재난 대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장년층 및 청년층의 경우도 1인가구 구성원은 다인가구 구성원과 비교할 때 재난 대응 취약성을 드러낸다. 만40~64세 인구를 일컫는 중장년층은 일반적으로 개인별 생애주기를 놓고 볼 때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는 일반적인 중장년층과 특성을 달리하며 오히려 노인 1인가구와 특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경제적 노후 준비 수준이 열악하고, 낮은 취업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같은 연배의 다인가구 구성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주거환경 역시 열악하다(Kang & Lee, 2016). 중장년층 1인가구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이 자력으로 대피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상황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더 많은 평균 시간이 소요되고 자력에 의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 1인가구의 재난 취약성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청년실업률과 증가하는 만혼 및 비혼 경향은 청년층 1인가구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회진출 시기로 분류되는 25~34

세 연령대 청년층 1인가구 중 원룸, 고시원 등 단칸방 가구 비중이 약 50%로 매우 높아서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준다(Statistics Korea, 2018b). 원룸, 고시원 등으로 이루어진 소형 밀집 주거공간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며, 좁은 골목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Ko, 2017).

결국 여성, 노인, 중장년층,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인구집단에서 1인가구 구성원은 다인가구 구성원과 비교할 때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고, 대형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 상황에서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 2. 1인가구와 사회적 지지

인간은 ‘환경속의 인간’으로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그 안에서 사회적 욕구 또한 충족된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애정,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 Jo, 2003).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hen & Wills, 1985; Jeong, 2000; Kim, 2009). 사회적 지지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지는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증상을 완화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Jackson & Warren, 2000; Bae, 2010; Min, *et al.*, 2018). 또한, 재난으로부터 입은 심리적 피해로부터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 *et al.*, 2018). 사회적 지지는 단순히 재난 이전 일상의 회복을 넘어 재난피해자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Sim, *et al.*, 2016)

사회적 지지는 가족 지지, 친구 지지, 지역사회 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Rho & Mo, 2007), 1인가구의 경우에는 일차적 지지체계인 가족 지지가 부재하다. 사회적 지지의 기본적 공급처인 가족의 부재는 건강 상태 악화로 일상적 생활이 어려울 때, 외로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Statics Korea, 2012). 1인가구 중장년층 또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상실, 가족해체 경험 등으로 홀로 생활하게 되면서 빈곤, 건강, 우울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협소해져서 외로움과 고독, 소외 등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Hwang & Seo, 2015). 역경에 처해있을 때 사회적 지지의 부재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가 없는 것 자체가 심리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et al.*, 1983). 요약하자면 1인가구의 경우, 일차적인 가족 지지가 부재하고, 미흡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인하여 친구와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도 약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하여 약한 사회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 3.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

모든 인간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를 원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는 오랜 과거부터 인간 삶의 중요한 목표였으며,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Soh & Park, 2019). 삶의 질은 개인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요소를 포괄한다.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의 행복 조건에 대한 평가로서 복지의 척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나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Park & Chun, 2017; Ahn & Lim, 2010).

OECD 2017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38개국 중 29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개 영역 중 사회적 지지만을 측정하는 커뮤니티 지수는 0.0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OECD, 2018). 이는 삶의 질 영역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 측면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재난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입히고, 경제적 피해를 동반함으로써 피해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재난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폭이 넓고 정도가 심할수록, 재난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낮아진다(Yoo, *et. al.*, 2015).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함, 분노와 함께 허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인과관계를 설정하면서 불명확한 대상을 탓하거나,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되돌아보기도 한다(Choi, 2006).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소득,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재난 발생 이전에도 1인가구의 삶의 질은 다인가구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소득, 건강상태, 주거환경의 열악함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피해를 배가 시킬 수 있으며, 재난 발생 후 일상으로의 회복기간도 길고 자력에 의한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1인가구 재난피해자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재난 피해와 회복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목표는 물질적 피해의 원상복구와 직접적인 인명 손상의 방지와 구조에 국한되어 있으나, 재난의 피해는 물질적 보상이나 지원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Choi, 2006). 궁극적인 의미에서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은 피해자의 삶의 질이 적어도 재난 피해 이전 수준까지 도달해야 함을 의미한다.

#### 4.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맞이하는 큰 변화는 삶의 질에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손실, 상실감, 심리적 피해를 동반하는 재난의 경우 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Cho, 2019).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cnet, *et. al.*, 2016).

선행연구에서도 재난 피해를 당한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et. al.*, 2019),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Kim, 2019; Cho, 2019).

노인가구 중에서도 가구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n(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 부부가구가 노인 1인가구보다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삶의 질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본 Lim & Jeon(2004)의 연구에서는 1차 지지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 지지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녀와의 관계, 친구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u, *et. al.*(2017)의 연구는 1인가구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지지 하위 요인 중 심리적·정서적 지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개인의 삶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2차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한국 궤림에 의뢰하여 훈련된 조사원들이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재난피해자와의 면담 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1대1 면담을 통해 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국내 침수(호우·태풍) 및 지진 피해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발생한 사회재난(화재 등) 피해자 중 국가로부터 의연금을 지원받은 1,65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1인가구 구성원은 196명, 다인가구 구성원은 1,463명이었다.

## 2. 변수 측정

###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재난 후 가족, 친척, 친구, 연인, 선후배, 동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Park(1985)이 개발하고 Yu & Seol(2015)이 수정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준다.’, ‘내 주변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등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66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Min, et. al.(2002)가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은 개인적인 대인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 ‘아주 그렇다(5점)’)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6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5개 항목과 우울 및 불안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울과 불안은 1인가구 및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Nam & Jung, 2011; Cho, 2019; Kim, et. al., 2019; Kwon, 2019).

성별은 ‘여성=0’을 기준으로 여성(0), 남성(1)로 더미처리하였으며, 연령은 13~18세(1), 19~29세(2), 30대(3), 40대(4), 50대(5), 60대(6), 70세이상(7)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초등이하(1), 초졸(2), 중졸(3), 고졸(4), 대학 이상(5)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상태는 100만원 미만(1),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2),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5), 500만원 이상(6)으로 구분하였고, 건강상태는 주관적 현재 건강상태로 ‘매우 나쁘다(1점)’부터 ‘매우 좋다(7점)’까지 7점이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An, et. al.(2013)의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활용하였다. ‘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전혀 느끼지 못했다(1점)’ ~ ‘거의 매일 경험 하였다(4점)’)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 정도가 낮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25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의 정도는 Spitzer, et. al.(2006)가 개발한 GAD-7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전혀 느끼지 못했다(1점)’ ~ ‘거의 매일 경험 하였다(4점)’) 형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안 정도가 낮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941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비교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1인가구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I.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은 가구특성 별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1인가구 재난피해자는 총 196명이었으며, 그 중 여성이 125명(63.8%)로 다수를 차지하

Table 1. General details

(N=196/1463)

Variables	Category	One-person households		Multi-person households	
		n	Percent	n	Percent
Gender	Male	71	36.2%	734	50.2%
	Female	125	63.8%	729	49.8%
	Total	196	100.0%	1463	100.0%
Age	13-18	-	-	41	2.8%
	19-29	9	4.6%	117	8.0%
	30-39	11	5.6%	83	5.7%
	40-49	6	3.1%	174	11.9%
	50-59	26	13.3%	302	20.6%
	60-69	44	22.4%	363	24.8%
	70-	100	51.0%	383	26.2%
	Total	196	100.0%	1463	100.0%
Education	Elementary under	55	28.1%	152	10.4%
	Elementary	41	20.9%	269	18.4%
	Middle school	31	15.8%	266	18.2%
	High school	51	26.0%	568	38.8%
	University graduate and up	18	9.2%	208	14.2%
	Total	196	100%	1463	100%
House hold income per month (10,000 )	<100	129	65.8%	212	14.5%
	≥100, <200	35	17.9%	341	23.3%
	≥200, <300	25	12.8%	323	22.1%
	≥300, <400	6	3.1%	332	22.7%
	≥400, <500	-	-	126	8.6%
	≥500	1	0.5%	129	8.8%
	Total	196	100.0%	1463	100.0%
Health status	Very bad	7	3.6%	30	2.1%
	2	33	16.8%	107	7.3%
	3	50	25.5%	216	14.8%
	Normal	49	25.0%	435	29.7%
	5	35	19.7%	266	18.2%
	6	16	8.2%	331	22.6%
	Very good	6	3.1%	78	5.3%
	Total	196	100.0%	1463	100.0%

였다. 연령대로는 70대 이상이 100명(51.0%)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44명(22.4%), 50대 26명(13.3%) 30대 11명(5.6%), 20대 9명(4.6%), 40대 6명(3.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 이하 혹은 초졸이 각각 55명(28.1%), 41명(20.9%)으로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가구당 월 수입액은 월 100만원 미만이 129명(65.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5명(17.9%),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25명(12.8%),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이 6명(3.1%), 500만원 이상이 1명(0.5%)이며, 건강수준은 가장 낮을 경우의 1점과 가장 높을 경우의 7점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평균값은 3.73이었다.

다인가구 재난피해자는 총 1463명이었으며, 그 중 여성이 729명(49.8%) 남성이 734명(50.2%)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로는 70대 이상이 383명(26.2%), 60대 363명(24.8%), 50대 302명(20.6%), 40대 174명(11.9%), 20대 117명(8.0%), 30대 83명(5.7%), 10대 41명(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568명(38.8%), 초졸 269명(18.4%), 중졸 266명(18.2%), 대학 이상 208명(14.2%), 초졸 이하 152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 수입액은 월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이 341명(23.3%),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이 332명(22.7%),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323명(22.1%), 100만원 미만이 212명(14.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건강수준의 평균값은 4.43이었다.

2. 가구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의 수준

가구 형태에 따라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표는 <Table 2>와 같다. 삶의 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5.505, p<.001), 다인가구(M=3.063)가 1인가구(M=2.79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또한 가구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5.591, p<.001), 다인가구(M=3.472)가 1인가구(M=3.17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회귀 분석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28 ~ 3.162 사이로 모두 10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21.182,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는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중 건강상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불안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건강상태( $\beta=.279$ ), 사회적 지지( $\beta=.239$ ), 불안( $\beta=-.217$ ) 순으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 of major variables between One-person households and Multi-person households

Variables	House Holds	n	M	S.D	t
Quality of Life	One-person	196	2.795	.637	-5.505***
	Multi-person	1463	3.063	.643	
Social Support	One-person	196	3.174	.686	-5.591***
	Multi-person	1463	3.472	.703	

\*p<.05, \*\*p<.01, \*\*\*p<.001

Table 3. Multivariate regression results for One-person Households's Quailuty of Life

Independent variables	B(SE)	$\beta$	t	p
Gender (male=1)	.065(.081)	.049	.808	.420
Age	.028(.038)	.062	.732	.465
Education	.033(.039)	.071	.846	.399
House hold income per month (10,000)	.079(.051)	.114	1.546	.124
Health status	.127(.032)	.279	3.931***	.000
Depression	-.162(.098)	-.156	-1.658	.099
Anxiety	-.211(.089)	-.217	-2.380*	.018
Social Support	.222(.052)	.239	4.255***	.000

\*p<.05, \*\*p<.01, \*\*\*p<.001  
F=21.182(p<.001), R<sup>2</sup>=.475

## V. 결론

본 연구는 가구형태가 급속하게 1인가구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재난발생 시 ‘신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1인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재난피해자들이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적 지지가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여성이 63.8%, 60대 이상이 73.4%, 초졸 이하가 49.0%, 가구수입 100만원 이하가 6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1인가구는 빈곤층, 여성,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복합적인 재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Fernandez, *et. al.*, 2002; Ko, 2015; Chang, 2015).

둘째, 가구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인가구의 삶의 질이 다인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인구사회학적 취약성이 낮은 삶의 질로 직결됨을 의미한다(Statistics Korea, 2018c). 사회적 지지 또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tatistics Korea, 2012). 1인가구는 재난 발생 전에도 약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급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취약성은 재난 발생 후에도 계속되는데, 재난 후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피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 상황에서 돌봄의 부재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 등 재난관련 각 단계에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관리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사회적 지지가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 건강상태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불안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난은 신체적 외상 뿐만 아니라 PTSD, 우울 및 불안 등 정신적 외상도 동반하며, 이는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Pocnet, *et. al.*, 2016; Kim & Lee, 2019). 재난으로 인한 충격은 심리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난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Choi, 2006). 따라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건강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손상 회복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재난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적시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Song,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의 의료접근성을 도와주는 사회적 자원과 돌봄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원 및 병원 동행 등 실질적 지원을 감소시키며 필요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Moon & Kang, 2016). 따라서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경우 의료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가사지원, 활동지원,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회적 지지는 건강상태 다음으로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은 결과이다(Kim & Kim, 2019; Cho, 2019).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일차적인 사회적 지지망이 부재한 1인가구의 경우 이웃, 친인척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의 확장이 더욱 중요하다(Pocnet, *et. al.*, 2016).

한편 본 연구에 따르면 재난피해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위, 소득 등 사회·경제적 효과보다 정서적 효과가 삶의 질에 더 강한 효과를 미친다는 Han(2015)의 연구결과와 사회적 지지 가운데 정서적 지지만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Kang(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1인가구의 높은 빈곤율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후속연구를 통해 경제적 상태가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1인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난 취약성을 지닌 1인가구 구성원에게는 재난 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평소에 지역 사회 차원에서 1인가구와 이웃, 1인가구와 자원봉사자, 1인가구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연결하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여 재난 발생 시 이러한 지지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부족한 사회적 지지는 재난 발생 후 PTSD, 우울, 불안 등 심리적 피해로부터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비교를 통해 1인가구의 재난취약성을 확인하였고,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분가, 독립 등 자발적 동기에 의한 1인가구와 이혼, 사별, 별거 등 비자발적 동기에 의한 1인가구를 구별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Park & Chun(2017)은 같은 1인가구라 하더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속연구에서는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1인가구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BK21+ 재난복지전문인력양성사업단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References

- Ahn, Byoung Wook and Young Sam Li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mong Physical Education Class Participa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4(3): 7-16.
- An, Je Young, Eun Ran Seo, Kyung Hi Lim, Jae Hyun Shin, and Jung Bum Kim. 2013.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creening Tool for Depression(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Therapies in Psychiatry*. 19(1): 47-56.
- Ann, Kyung Sook. 2005.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Couples and Single Households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1-19.
- Bae, Jeom Mo.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ization Shocks, Social Supports, Coping Behaviors, and PTSD Sympto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ire Official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3): 141-163.
- Chang, Eun Ha. 2015. Gender and Natural Disaster: An Opportunity for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Policy. *The Women's Studies*. 88: 327-371.
- Cho, Myong Sun.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among Disaster Victims: An Analysis of the 3rd Nationwide Panel Survey of Disaster Victims.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0(2): 217-225.
- Choi, Nam Hee. 2006. Establishing the Public Support System for Disaster Survivors. *Crisisonomy*. 2(2): 1-1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and T. A. Will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Fernandez, L. S., D. Byard, C. C. Lin, S. Benson, and J. A. Barbera.

2002. Frail Elderly as Disaster Victims: Emergency Management Strategies.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17(2): 67-74.
- Go, Dae Yoo and Do Yun Kim. 2017. The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Percep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Level: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Region and Education. *GRI Review*. 19(3): 393-417.
- Han, Joon. 2015. Quality of Life in Korea and Its Social Determinants.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10(2): 67-94.
- Hwang, Sung Za and Min Ho Seo. 2015. A Study on the Self-supported Life and Social Support among Older Adults in One-person Households. *The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5(2): 111-132.
- Jackson, Y. and J. S. Warren. 2000. Appraisal, Social Support, and Life Events: Predicting Outcome Behavior in School 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1(5): 1441-1457.
- Jeong, Ji Hye, Jin Seon Kim, and Dug Keun Park. 2018. A Disaster Service Status and Policy Suggestions for the Safe Living Environmen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 Environmental Policy And Administration Society*. 10: 61-62.
- Jeong, Young Sim. 2000. The Influence of Self-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ang, Eun Na and Min Hong Lee. 2016. Single-person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4: 47-56.
- Kang, Ji Young. 2015.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Child Maltreatment Mediated by Life Satisfaction: Quality and Quantity of Emotional and Material Support. *Korea Welfare Panel Study*. 8: 191-205.
- Kim, Dong Sik. 2016. Disaster Capacity of Women and Policies. *Gender Review*. 43: 4-15.
- Kim, Hyun Sung and Min Soo Kim. 2019. The Impact of Disaster Victim'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4): 841-854.
- Kim, Jee Sun and So Yean Lee. 2019. The Effect of Psychosocial Factors o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Groups of Natural Disaster Victim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3): 669-693.
- Kim, Ki Tae, Soo Whan Kim, Yong Ho Kim, and Ji Young Park. 2007.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Go-yang: Gongdongche.
- Kim, Myung Ju. 2009. A Study on the Impacts of Ego-resilienc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im, Sae Bom, Song Sik Choi, and Young Ji Song. 2019.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Elderly Victims of Disaster.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4(2): 9-34.
- Kim, Sae Bom, Yun Jung Choi, and Song Sik Choi. 2019. A Research on Factors Influenc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Elderly People at Home: Comparison between Past Experience in Earthquake. *Crisisonomy*. 15(1): 79-95.
- Kim, Seon Ja and Og Gwi Jo.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school Students. *Educational Theory*. 13(1): 361-385.
- Ko, Dong Hyun. 2015. Hurricane Katrina as Unnatural Disaster : Government Failure and Inequality of Risk. *Korea Social Policy Review*. 22(1): 83-119.
- Ko, Ga Young. 2018.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rime Victimiz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 Ko, Haeng Hyun. 2017. A Study on the Fire Risk of Highly Densed Urban Residential.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In-depth Analysis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nd Implications of Polic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2018 Poverty Statistics Yearbook.
- Korea Mental Health R&D Project. 2018. A Manual for the Disaster-related Mental Health of Vulnerable Groups.
- Ku, Jung Yeon, Geun Young Kim, Da Hee Kim, Seon Mee Kim, Soo Yeon Kim, Jia Kim, Chun Hwa Bae, Hye Yoon Lim, Yoo Hyun Choi, Sun Young Hwang, Duk Yoo Jung, and Jee Yeon Kim. 2017. A Study on Cor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Residential Environment, Eating Habit and

-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Alone. *Journal of the Nursing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51: 73-87.
- Kwon, Jong Sun. 2019. Influencing Factors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ddle and Old Adult One-person Household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153-167.
- Kwon, Oh Jin. 2018. A Study on Determinants of QOL of Local Residents in Abandoned Mine Areas: Focusing on the Subjective QOL of Taebaek Citizen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4: 831-858.
- Lee, Dan Bi. 2015. An Analysis of Single-person Household's Expenditure on Food Consumption.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Lee, Sun Young. 2016.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ingle Person Household's Crime Prevention Through Securing Privacy on Housing Complexes: Focused on Defensible Space Theory.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Lim, Joo Young and Gwee Yeon Jeon. 2004. A Study of Variables Influencing Subjective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1): 71-87.
- Min, Moon Kyung,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8. Psychosocial Factors Influential to the Mental Health of the Public Indirectly Affected by the 9/12 Gyeong-ju Earthquake: Focusing on Individual Resilience,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Public Trus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5): 93-116.
- Min, Sung Kil, Kwang Il Kim, and Il Ho Park. 2002. *Korean Version of WHOQOL*. Seoul: Hanawi Hagsa.
- Mitchell, R. E., R. C. Cronkite, and R. H. Moos. 1983.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2(4): 433-448.
- Moon, Jung Hwa and Min Ah Kang. 2016.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Unmet Medical Needs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An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2): 480-510.
- Nam, Ki Min and Eun Kyung Jung. 2011. The Influence of Social Activity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Elderly Women Living Alone on Their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Death-anxiety.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2: 325-348.
- OECD. 2018.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 Park, Jee Won.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Park, Mee Sok and Jee Won Chun. 2017. The Effect of Daily Anxiety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of Unmarried Single Person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5(4): 25-42.
- Pocnet, C., J. Antonietti, M. F. Strippoli, J. Glaus, M. Preisig, and J. Rossier. 2016. Individuals' Quality of Life Linked to Major Life Ev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Traits. *Quality of Life Research*. 25(11): 2897-2908.
- Rho, Byeong Il and Seon Hee Mo. 2007. The Effect of Levels and Dimensions of Social Support on Geriatric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7(1): 53-69.
- Shim, Kee Oh, Sang Hyun Park, and Seong Hui Jeong. 2010. Research and Analysi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Primary Research Report.
- Shim, Olivia S., Young Woo Sohn, Sang Hyun Park, and Ji Won Yoon. 2016. Disaster Victims' Post-trauma Risk, Posttraumat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and Income as a Moderat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31(6): 105-112.
- Soh, Nahn Young and Sung Hee Park.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and Quality of Life in Youth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561-591.
- Solomon, Z., M. Mikulincer, and E. Avitzer. 1988. Coping,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2): 279-285.
- Song, Hai Yan, Jae Woo Choi, and Eun Cheol Park. 2015. The Effect of Economic Participatory Change on Unmet Needs of Health Care among Korean Adults.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5(1): 11-21.
- Spitzer, R. L., K. Kroenke, J. B. W. Williams, and B. Lowe.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 Statistics Korea. 2012. Korean Social Trends 2012.
- Statistics Korea. 2018a. 201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 Statistics Korea. 2018b.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in the Population Housing Survey.
- Statistics Korea. 2018c. Korean Social Trends 2018.
- Statistics Korea. 2019a. Statistic Standard Terminology.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3930&sT=](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3930&sT=).
- Statistics Korea. 2019b. 2018 Elderly Statistics.
- Won, Jong Hyeon. 2014. An Application of Consumption Values to The Segment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urchasing Behavior.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Yoo, Myoung Ran, Seon Young Choi, Hye Lee Han, Yu Mi Seo, and Myoung In Noh. 2015. The Effect of Post-traumatic Growth, Resilience, and Optimism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Disaster Victim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33(2): 1-14.
- Yu, Eun Kyung and Hyun Soo Seol. 2015.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Survey Research*. 16(1): 155-184.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은나, 이민홍.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34: 47-56.
- 강지영. 2015. 사회적 지지의 양과 질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아동학대 및 방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 191-205.
- 고가영. 2018. 1인 가구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고대유, 김도윤. 2017. 지역 재난관리 수준에 대한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 학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9(3): 393-417.
- 고동현. 2015. 사회적 재난으로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한국사회정책. 22(1): 83-119.
- 고행현. 2017. 도시의 소형 밀집 주거공간의 화재위험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구정연, 김근영, 김다희, 김선미, 김수연, 김지아, 배춘화, 임혜운, 최유현, 황선영, 정덕유, 김지연. 2017. 여대생 1인가구의 사회적지지, 주거환경, 식습관과 건강 관련 삶의 질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51: 73-87.
- 권오진. 2018. 폐광지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태백시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4: 831-858.
- 권종선. 2019. 중노년 1인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1): 153-167.
- 김기태, 김수환, 김영호, 박지영. 2007. 사회복지실천론. 고양: 공동체.
- 김동식. 2016. 여성의 재난역량 실태와 정책과제. *젠더리뷰*. 43: 4-15.
- 김명주. 2009.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김새봄, 최송식, 송영지. 2019. 재난피해 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74(2): 9-34.
- 김새봄, 최윤정, 최송식. 2019. 재가노인의 재난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지진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Crisisonomy*. 15(1): 79-95.
- 김선자, 조옥귀. 2003.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기존중감 및 행동문제와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3(1): 361-385.
- 김지선, 이소연. 2019. 자연재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집단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3): 669-693.
- 김현성, 김민수. 2019. 재난피해자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인문사회*21. 10(4): 841-854.
- 남기민, 정은경. 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 노병일, 모선희. 2007.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차원이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1): 53-69.
- 문정화, 강민아. 2016.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취약계층 행동모델 적용. *보건사회연구*. 36(2): 480-510.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912경주 지진을 간접 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 리질리언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공적 신뢰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9(5): 93-116.
- 민성길, 김광일, 박일호. 2002. (한국판)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하나의학사.
- 박미석, 전지원. 2017. 비혼 1인가구의 생활불안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4): 25-42.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 배점모. 2010. 소방공무원의 출동충격, 사회적 지지, 대처행태와 PTSD 증상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4(3): 141-163.
- 소난영, 박성희. 2019. 청소년 여가활동, 여가만족, 또래애착, 삶의 질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561-691.
- 송해연, 최재우, 박은철. 2015. 한국 성인의 경제활동 참여변화가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 4·5차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보건행정학회지*. 25(1): 11-21.
- 심기오, 박상현, 정성희. 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 심서영, 손영우, 박상현, 윤지원. 2016. 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위기와 외상 후 성장,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안전학회지*. 31(6): 105-112.
- 안경숙. 2005. 노인부부가구·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1-19.
- 안병욱, 임영삼. 2010. 교양체육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만족,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7-16.
- 안제용, 서은란, 임경희, 신재현, 김정범. 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19(1): 47-56.
- 원종현. 2014. 소비가치를 통해 살펴본 1인 가구 유형 및 구매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명란, 최선영, 한혜리, 서유미, 노명인. 2015. 재난피해자의 외상 후 성장, 자아탄력성, 낙관성과 삶의 질. *군진간호연구*. 33(2): 1-14.
- 유은경, 설현수. 2015. 사회적 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16(1): 155-184.
- 이단비. 2015. 1인 가구의 식품 소비지출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선영. 2016. 공동주택 단지에서 1인가구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연구. 방어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 임주영, 전귀연. 2004.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노년학*. 24(1): 71-87.
- 장은하. 2015. 자연재난과 젠더: 개도국 양성평등 제고 가능성과 한국의 성인지적 재난관리정책을 위한 시사점. *여성연구*. 88: 327-371.
- 정신건강 R&D 사업단. 2018. 재난정신건강지원을 위한 취약계층별 대응 매뉴얼.
- 정영심. 2000. 자기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지혜, 김진선, 박덕근. 2018. 독거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재난 서비스 현황 및 정책적 제언.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 61-62.
- 조명선. 2019. 재난 피해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차 재난 피해자 패널 자료분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0(2): 217-225.
- 최남희. 2006.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Crisisonomy*. 2(2): 1-18.
-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2.
- 통계청. 2018a. 2017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 2018b.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 통계청. 2018c. 한국의 사회동향 2018.
- 통계청. 2019a.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3930&sTt=](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3930&sTt=).
- 통계청. 2019b. 2018 고령자 통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의 노인빈곤실태 심층 분석 및 정책점 시사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 빈곤통계연보.
- 한준. 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4.
- 황성자, 서민호. 2015. 1인가구노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2): 111-132.

## 사회적 지지가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피해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재난 피해 경험이 있는 1,6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 재난피해자는 대부분 빈곤층, 노인, 여성 등 재난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가구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 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복합적인 재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1인가구 재난피해자가 다인가구 재난피해자보다 사회적 지지, 삶의 질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형태만으로도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가구 재난피해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지지적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재난, 1인가구, 사회적 지지, 삶의 질, 재난 취약성

---

**Profiles** **Yi Re Kim** :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2018. 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He is also taking a master's degre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is areas of interest are Disaster Vulnerable and child welfare(yyy9912@pusan.ac.kr).  
**Wonik Lee** :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2010.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His area of research includes disaster management, social support, health disparities, and community-based program development(wonik21@pusan.ac.kr).

